

끝나지 않은 여정

최남규 회고록

“여든의 백발노인이 되어 일생을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은
일제치하와 분단의 길을 지나오면서 고향을 향해 가는
기나긴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끝나지 않은 여정

최남규 자술 / 편집부 정리

1. 참회의 기록

나는 해방을 북간도에서 맞았다. 압제에서 풀린 북간도는 거리거리마다 이역에서 해방을 맞은 조선민족의 기쁨과 환희의 만세소리로 물결쳤다.

그러나 나는 그 해방을 고뇌와 고통으로 맞았다. 해방은 내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근원을 묻는 물음이었고, 해방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굴절되고 나약한 지식인의 몰골이었다.

고뇌와 고통으로 해방을 맞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신문배달부와 취사부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영신중학을 고학할 때도, 함께 고학했던 만조카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소년병사했을 때도 소학교 동기동창생들이 어린 나이로 일제 경찰에 끌려가 투옥되고 행방불명될 때도 나는 그것이 민족의 운명과 질곡에서 연유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차별대우가 거의 없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고등관이 됨으로써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반항의식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내가 성실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 밑에 일본인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우리 민족이 걸던 고난의 길과는 점점 어긋난 길로 이어져갔다. 비록 민족을 반역한 일은 없으나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엄격한 거울에 비쳐본다면 그것은 '친일'에 다름아닌 것이다.

해방이 되자 나는 인생의 중턱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견잡을 수 없는 회한과 고통으로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

'고등관 노릇을 한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진실 옆에 서있는 고통

처음부터 민족해방의 길을 걸어왔던 동지들의 순결한 삶과는 달리 나는 '잘못'을 통해 늦게서야 역사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가치관과 사상은 잘못과 위선을 깨닫고 참회하는 과정에

서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잘못'은 내가 3차에 걸친 탄백(坦白, 자기비판)과정에서 빠져린 참회를 했다고 해서 지워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앞으로 지어야 할 시지프스의 바위였고, 채찍이었고, 나의 진실 옆에 서 있는 고통이었다.

나는 실패한 통일일꾼이다. 그러나 그 실패는 체포된 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또 다른 물음이 고문실에서 시작되었다. 나를 밀고한 동료가 "최선생, 살고 봅시다." 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때 속으로 울었다.

'인텔리는 나약하다 했는데... 당신도 이미 이용당하고 있군요.'

과거의 잘못은 그 고문실, 나를 유혹하는 손길 옆에서도 서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을 반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과거의 허물은 나를 채찍질했고 분단의 멍에를 진 민족의 운명에 가슴앓하게 했다.

'비전향'의 삶을 살아오는 데는 동지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내게 있었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이 고난에 처했을 때 역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인텔리의 참회고 민족 앞에 하는 속죄였다.

꺾어질지언정 구부러들지 않는다.

한갑달 아침 전주형무소에서 혈압이 터진 뒤로 나는 남몰래 울기 시작했다. 기뻐도 슬퍼도 울게 되었다. 운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 나는 꺾어질지언정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구부러 들진 않는다.

여든의 백발노인이 되어 일생을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은 일제치하와 분단의 길을 지나오면서 고향을 향해 가는 기나긴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끝나지 않은 이 여정- 살아서 끝내 이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수전증으로 떨리는 손끝을 꼭꼭 눌러 더듬어가는데, 비명에 옥사한 동지들이 눈앞을 가려 피눈물로 쏟아지고, 산에서 고생한 동지들 앞에서 그저 옥살이밖에 한 것이 없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그지없이 부끄럽다.

2. 국경의 밤

열세 살 누나의 등에 업혀 두만강 얼음강판을 건넌 것은 뉘이 채 지나지 않는 1913년 초봄이었다.

어린시절 아버지는 우리 조상이 대대로 땅을 갈고 묻힌 고향 명천(明川)과 이역살이를 떠났던 국경의 밤을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다. 자라면서 가족들에게 들었던, 조국을 떠나던 그날밤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최근 병원으로부터 지병인 심장병에 경고를 받으심. →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여정을 멈출 수 없어 지도를 다시 펴시며.....

우리 가족은 두만강 우안에 자리잡은 '국경의 도시' 회령 변두리의 한 객주집에서 주인 아낙네가 끓여준 더운물에 식은 밥을 달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자정이 지날 무렵 서둘러 길을 떠났다. 파수꾼의 감시를 피해 노모와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두만강 얼음강판을 건널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우신 아버지가 먼저 큰 보통이를 걸머지고 밖으로 나섰다 그뒤 할머니가 옷견지를 허리에 두르고 꼬부랑 지팡이에 의지하고서, 다음엔 열세 살 누나가 첫똥도 안된 나를 업고 머리에는 세간 그릇을 담은 함박을 이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뒤에 빠뜨린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등에는 세 살박이 아이를 업고 머리에는 큼직한 옷보통이를 인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지고 이고 한 짐짝 위에는 예외없이 박바가지 서너 개와 쫄신, 삼신 서너 켤레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멀리 이국땅 북간도로 이사가는 우리 가족에게 이별의 정표로 친척과 이웃들이 준 선물이었다.

북으로 북으로 뻗은 길

두만강 독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뻗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섯 가족이 한데 뭉쳐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식은땀

이 흘렀다고 한다. 걸음을 늦추고 보니 뒤에 따라온 사람은 흰옷을 입은 조선사람으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소금을 지고 두만강 얼음판을 건너가 팔고하는 소금 밀수꾼이었다.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소금을 내다 판다는 서른두 살의 그 소금장수는 일본 등살

에 전디지 못하고 북간도로 이사간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호의를 보이며 길안내를 자처해 나갔다. 초겨울 얼음이 채 얼기 전이나 늦겨울 얼음이 풀릴 때 두만강을 건너가다 물속에 빠져 죽은 소금 밀수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을 건널 때를 기다렸다. 마침내 올 때가 왔다. 우리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강둑에 올라섰다.

가슴에 품은 비단주머니

입춘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가까웠는데 두만강 얼음은 녹기는 커녕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등골에 와 닿았다 한다. 아버지는 가슴에 품은 비단주머니 그 속에 고향흙 서너 줍이 들어있는 것을 만져보았다.

온 길 천리인데 이제 갈 길 몇천리나
하늘에는 별이 총총 조각달 걸려 있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금수강산 내 조국아

모닥불 불빛이 반짝이는 파수막 사이를 파수꾼들이 없는 틈을 타 우리가족은 소금밀수꾼의 뒤를 따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엉금엉금 기어갔다. 제일 뒤에서 가던 아버지의 발이 중국땅에 올려지던 그 때 먼 마을에서 개가 짖고 닭이 해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3. 유년시절 목동생활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식민지 토지 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시 자본주의국가로 성장하고 있던 일본은 농업문제의 곤경을 식민지에 의존해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듦으로써 타개하려 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8년까지 8년 간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제는 200만 정보의 토지를 강탈하고 그 일부를 도오다구(東拓), 후지(不二), 도오야마(東山), 구마모도(熊本) 등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 이주민들에게 불하했다.

끝없는 고난의 행렬

이에 따라 우리의 토지소유제도는 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으며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국을 등지고 수천 리 이국땅 중국이나 러시아의 연해주(블라디보스톡, 하바로스크)로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우리 가족도 끝없

이 이어지는 이 고난의 행렬속에 끼어 있었다.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 명남동 두메산골이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첫부인 황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맏딸이 출가한 지 1년도 채 못되어 남편과 불화끝에 소나무에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고, 부인 황씨는 식음을 끊다시피하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딸이 간 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화병이 든 아버지는 맏아들을 삼척 김씨집안의 처녀와 결혼시켜 아들 부부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길주 명천의 명물인 고급 삼베를 사서 한짐 질머지고 한양 장삿길을 떠났다. 돌아올 때는 다시 한양에서 고급품(훈양, 토시, 가죽신, 꽃신, 망건, 탕관 등)을 한짐 지고 오면서 팔아 돈을 모았다. 고향에 돌아오자 같은 명남동 이마토라는 곳의 강릉 김씨 김주삼 훈장의 맏씨와 결혼하였다. 그뒤 북간도로 이사갈 결심을 굳혔을 때 다시 한번 한양장사를 나가 약간의 땅을 살 돈을 마련하였다. 마침내 1913년 일제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드넓은 땅, 북간도를 향해 가족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민요〉 길주 명천의 베톨노래

길주나 명천은요 베패는 고장
집집의 바디소리 요란도 하다
들고서 짹짹 놓고서 짹짹
말같은 시약시 잘도 짜누나

북 속에 감긴 실은 풀어놓어도
요 내 가슴에 멎든 정은 풀리지 않네
들고서 짹짹 놓고서 짹짹
말같은 시약시 한숨만 쉬네

이역살이, 황무지 개간

아버지가 북간도에서 처음 자리잡은 곳은 국경의 도시 회령에서 1백 50리, 그리고 수많은 조선 사상가들이 망명해 살고 있는 용정(龍井)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동량(東良)이란 마을이었다. 이곳에 도착해 내가 두 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이 이역땅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네 살이 되던 해 나를 업고 두만강 얼음강판을 건너온 이복누님이 출가하셨다. (이 이복누님은 내가 57



◀ 노구의 지리학자가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두를 그리며

년 서울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할 때 옥바라지를 해 주던 생질녀 김옥련과 생질서 김석의 어머니며 장모다.) 다섯 살 때 고향 명천에 남아 있던 이복큰형님 식구 다섯 사람이 일제에 강점된 식민지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북간도로 이사와서 한데 합쳤으니 식구가 모두 열한 사람으로 늘어났다. 얼마 안되는 농토와 6칸 초가집으로는 많은 식구가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는 토지와 초가를 팔아 좀더 오지(奧地)에 가서 황무지 개간을 겸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입춘이 지나자 곧 열한 식구를 거느리고는 화룡현 삼도구 수동촌(和龍縣 三道溝 水東村)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다.

청산리 밀림지대 독립군 군자금모집 비밀 책임자로

아버지는 이곳에 도착한 그 해 겨울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동촌에서 40리 거리에 있는 청산리 밀림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소속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독립군 군자금 모집 지방 책임자로 일하셨다. 1920년 9월 일본군 5만병력을 2500병력으로 맞아 일본군 3,300여 명을 무찌른 청산리 전투 뒤 그들의 보복작전을 피해 헤이룽 강(黑龍江) 부근 방면으로 이동해갈 때까지 4년 동안 군자금 모집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밀활동을 하셨다.

버들피리 불며불며

그 후 6년 동안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온 식구가 전력을 다했다. 나와 세 살 위인 맏조카, 한

살 아래인 둘째 조카 세 사람은 농사의 잔심부름을 거들며 소를 먹이고 쇠꼴을 베는 것이 일과였다. 봄이 오면 소를 타고 버들피리 불며불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어오기도 하며 (추운 지대라 개나리는 볼 수 없었다) 당국화·나팔꽃·분꽃·초본 백일홍·해바라기 등을 마당 귀퉁이에 심어 화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창궐하는 토비에 쫓겨

그런데 김좌진 장군 휘하의 독립군이 헤이룽강 부근으로 이동한 후 청산리 밀림지대를 근거지로 한, 사상·정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순전히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토비(土匪)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동촌에서 북쪽 10리 거리에 있으며 5일장이 서는 충신시(忠信市)로 모여들었다.

우리집은 그리 여유있지는 않았지만 나와 두 조카를 공부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가족은 충신시로 옮겨가게 되었다.

4. 북간도 13살 소년의 바뀌치기된 조혼

— 좌절된 꿈

1923년 4월 초 12살에 비로소 나는 충신시에 있는 사립 명신(明新)소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전까지 쓰던 아명 '바위'를 버리고 나는 선생님이 집(集)자 돌림으로 배움에 힘쓰라고 지어주신 최문집(崔文集)이 되었다.

평탄하지 않았던 북간도 학창생활에 앞서 13살 되던 해 바뀌치기에 의해 조혼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팔순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민족의 결혼 형태를 헤아려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중매혼 2. 데릴사위 3. 민며느리 4. 매매혼 5. 누이바꿈 1) 6. 과부동지기 7. 바뀌치기 8. 보쌈 2)

13살 되던 해 아버지 뜻에 따라 엄씨집 처녀와 나의 약혼이 성립되었다. 나는 그때 아기가 배꼽에서 태어난다는 어머니 말을 끝이 곧대로 믿을 만큼 철부지여서 귀여운 엄씨집 소녀가 우리 집에 시집오면 그애하고 내가 짝이 되고 누이들이 짝이 되어 자치기, 못박기, 땅따먹기, 채기차

1) 누이를 처남과 혼임시킴

2)지난날, 양반집 딸이 두 남편을 섬겨야 할 팔자인 경우, 팔자땀을 하기 위하여 남자를 보자기에 싸서 붙잡아다 딸과 재운 다음 죽이던 일

기를 하며 재미있게 놀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문설주를 틀어쥐고 울다

그런데 실상 큰상을 받은 신부의 모습을 훑쳐보니 이게 어쩔된 일인가. 삼국지 야외무대에서 본 장비가 수염을 깎고 연지끈지를 바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썹이 끼어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부엌에 가 눈을 씻고 돌아와 다시 보았으나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기대는 어이없이 무너지고 나는 “장비다!” 하고 소리치며 실신해버렸다. 살(煞)을 맞은 것이었다.

내가 정신이 든 것은 다섯시간이 지난 뒤였다. 출가하신 큰 누님이 내 손을 잡고 달래며 신부 방에 들여보내려 했다. 나는 문설주를 틀어쥐고 안 들어가겠다고 울었다. 누님이 나를 억지로 신부방에 데려다놓고 나간 뒤 나는 체에 담아놓은 과자, 과일을 먹을 생각도 없이 구석진 곳에 가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밤이면 친구들 집을 떠돌다

이렇게 바뀌치기로 내가 조흔하게 된 것은 1924년 음력 6월 13일이었다. 이 바뀌치기는 엄장비의 네째 오라버니인 한문학자 엄의준이 추녀 누이동생을 출가시키기 위해 모의해 지휘한 일이었다. 그가 미인계를 쓴 12살의 귀여운 소녀—나의 각시가 되는 줄 알고 한껏 가슴부풀었던—은 엄장비의 조카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내가 39살 노병이 되어 두만강을 건너 용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엄장비의 조카를 보게 되었는데, 딸 하나를 데리고 전시 조선회령 애육원(화룡현 삼도구 송화평 소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바뀌치기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을 합치시키지 못했고 엄장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집안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그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마음의 접근도 하룻밤의 부부관계도 없었다. 나는 밤이 되면 친구들 집을 떠돌았고 내게서 소외된 엄장비는 병을 핑계삼아 친정에 가 있곤 했다.

죽마고우 한갑선

나의 소학교 동창생으로 유일한 여자 죽마고우(竹馬故友)는 한갑선으로 나보다 두 살 아래, 내 누이동생과는 동갑동무였다. 갑선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강릉김씨로 그녀가 여덟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난한 보부상으로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집과는 두 집 건너에 있어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도 하고 공부도 함께 했다. 갑선은

여름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 수 없어 우리집에 와 내 누이 야금(野金)이와 함께 지냈는데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내가 6학년(17살) 되던 해 갑선네 가족이 고향인 무산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엄장비의 부모는 잘못된 결혼인 줄 알면서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나의 꿈은 이 봉건적 폐습에 묶여 좌절됐다.

황철나무에 울던 새들이 흩어지다

1928년 7월 17일 갑선네 가족이 무산으로 이사가던 날 야금과 나는 10리 거리인 수동촌까지 배웅을 했다. 수동촌에 이르자 갑선은 울기 시작했다. 우리들도 같이 울었다.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큰 황철나무(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부락민들이 제삿상을 차려 지신제를 드리는 나무) 가지에서 울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흩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황철나무의 맞은편에 있는 다섯 살 때 죽은 귀여운 동생 철석(鐵石)의 무덤을 찾았다. 8년 전에 죽은 동생의 무덤은 풍상에 씻겨 평지처럼 되어 있었고 누님과 함께 심어놓았던 당국화, 코스모스만이 지고 피고 해서 아름다운 화단을 이루고 있었다.

5. 북간도 학창생활

졸업할 때까지 나는 줄곧 수석을 했지만 중학교 진학 문제는 평탄치 않았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중학 진학을 반대하였던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었다

그 당시 이마 일제가 북간도에까지 세력을 뻗쳐 용정에는 일본 총영사관, 지방도시에는 경찰서, 좀더 작은 도시에는 경찰분서가 있었는데 내가 살던 충신시에는 아직 경찰분서조차 없어서 일 년 내내 ‘타도 일본제국주의’나 ‘중·한민족 단결 만세!’ 등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이 밤에 찾아와서 우리 학교 강당에 어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곤 하였다. 충신시에서 한 10리 북쪽에 있는 ‘청파호’라는 곳은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무덤 4,5좌가 있었는데 일 년에 한번 개천절에 소를 잡아놓고 위령제를 지낼 때는 우리 학교 상급반인 4,5,6 학년 학생들도 선생의 인솔하에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중학교만 졸업하여도 일본 경찰의 ‘요시찰’ 딱지가 붙게 되며 일본 경찰에 끌려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 ‘함흥차사’였다.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소학교, 동기동창생 10명 가운데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한 동무가 두 사람이나 있었다. 그 가운데 조용선(趙龍善)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죽었으며, 이태협(李泰協)은 만기출소할 때까지 옥살이를 했다. (그뒤 이태협은 만주국에서 경찰노릇을 하었는데 해방이 되자 남양시 인민위원회 재무과장으로 있었다. 당은 관대하였으므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한 점을 참작해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자 그를 용서하고 당에 기용했다)

내가 5학년 때 삼도구 충신시에 설립된 민립중학교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되었고, 나와 친구가 있던 윤영(尹英)과 황일기(黃一基)도 얼도고우(二道溝) 일본 경찰분서에 끌려갔는데 소식조차 없었으며 해방이 된 뒤에도 그들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 더더구나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120리 길을 이틀에 걸어 용정에 도착하다

그런데 나보다 세 살 위인 만조카가 부모들 몰래 도망쳐 용정으로 가서 일류학교인 영신중학교에 입학해 고학하고 있었다. 나도 결심을 굳히고 1929년 3월 24일 졸업식 전날 몰래 집을 탈출해 120리길을 이틀에 걸어 용정에 도착하였다. 만조카를 만나 영신중학교에 입학위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다. 한 학급 30명 정원 모집에 150여 명이 응시했는데 나는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두메산골에서 온 촌뜨기의 도시 중학교 학창생활이 시작되었다.

두메산골 촌뜨기의 고학생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문제는 오히려 그때부터였다. 집에서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만조카처럼 고학을 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고학자리가 그렇게 쉽사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등교한 첫날 나는 곤란한 사정을 동무들에게 얘기했는데 듣고 있던 이정호(李貞浩)가 “신문배달을 했는데 주인이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그만 두었다”고 하기에 나는 방과 후에 그와 같이 경성일일(京城日日)과 북선일일(北鮮日日) 신문지국을 찾아갔다. 다행히 배달 자리가 비어 있어 그 집에 유숙하면서 취사일을 비롯해 세탁, 온돌불때기(火夫), 장작패기 등 모든 잔일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신문배달원이 되었다.

요절한 만조카의 영구를 신고

세상사 호사다마(好事多魔)인가!... 다음해인 1930년 1월 초하룻날 나보다 일 년 먼저 객지에 와서 화부, 세탁부 노릇을 하며 공부하던 만조카 최병극(崔秉極)이 병으로 쓰러졌다. 용정 자혜



미완의 통일에서 얻은 '손녀'들. 탕제원을 방문한 여교사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째 되던 날 병명도 모른 채 장거리 전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친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운명하고 말았다. 이복형님과 함께 중국인 마차에 영구를 싣고 울며 울며 집에 돌아와서 3일장을 지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다.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도망쳐가서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는 공부하려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아버지가 누이동생들과 조카들로 나를 감시하게 하는 바람에 이틀 뒤 새벽에야 집에서 두번째 탈출을 할 수 있었다. 걸어서 이틀만에 용정에 도착하니 이 또한 무슨 봉변인가. 내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날보다 단 하루 늦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배달로 채용되어 있었다.

한갑선에게서 온 편지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아직 겨울방학 중인 학교에 가 보니 뜻밖에 한갑선에게서 편지 한장이 와 있었다.

“항상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목숨만은 붙어 있습니다.”로 시작된 갑선의 편지에는 무산에 이사는 뒤 계모의 반대로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며 지내는데 무산 제일 갑부인 윤씨집에서 맡여느리로 삼겠다고 하며 학교에 보내주어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 시집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처럼 고학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주십시오 ... (중략) ... 나

도 오파처럼 신문배달도 식모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오파 어머니께서 무산에 왔다 가셨습니다. 사기 그릇을 사러 왔지만 나를 보고 싶어 왔다고 하시며 우시기에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신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 내가 시장에 나가 사기 그릇을 사드리고 다음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고학자리가 없으면 청진에 있다는 방직공장에 가서 오파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공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인차 확실한 회답을 하여 주십시오.

갑선이 무산으로 이사가던 날이 떠올랐다. 비는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음침한 날씨였다. 무산까지 가자면 90리길로 걸어서 이들이 걸렸다. 이삿짐이라곤 갑선의 아버지가 지고 있는 이불 한 채와 누더기와 다름없는 옷견지, 갑선의 훗에미가 네살짜리 아들을 업고 식사도구를 대야에 담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자 나를 향하고 있던 갑선의 눈에서 수정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의 행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 동안 갑선이 내 곁에 와서 고학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다녔으나 모두 허사였다.

용정에 나보다 먼저 와 우수한 성적으로 영신중학교에 입학해 부자집에서 화부, 세탁부 노릇을 하며 고학하던 조카는 이역 땅에서 운명해 불귀의 객이 됐고, 나 또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그날 밤 당장 내 몸을 눕힐 자리조차 없었다.

나는 1930년 1월 13일 북간도 용정시 영신중학교 교직원 숙직실에서 회답 편지를 썼다.

...(전략) 내가 부잣집 만며느리로 시집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나는 앞으로 올 너의 행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갑선아 우리는 앞으로 오랍누이로 서로 소식이나 전하며 살기로 하자

교원합숙의 취사부가 되어

나는 그 뒤 다행히도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광명학원에 교원합숙이 생기게 되어 취사부로서 음식조리, 세탁, 군불때기, 나무패기 등 힘든 육체노동으로 5학년을 졸업하게 되었다. 학업성적이 4학년까지는 계속 1등이었으나 5학년 때는 수면부족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선생님들이 “한 해 휴학한 뒤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

지만, 다시 고학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그대로 공부를 계속해 동기생 13명 가운데 2등으로 졸업했다. 학급반장만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맡았다.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 번지는 항일학생운동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투쟁운동만세사건이 이역 북간도 용정에 파급되어 온 것은 내가 2학년 때인 1930년 봄의 일이다. 용정에는 인구가 3만도 못 되는데 영신(永新) 대성(大成) 은진(恩眞) 동흥(東興)의 4개 남자 중학교와 광명(光明) 명신(明信)의 2개 여자중학교 있었는데 영신과 대성은 널판지 율타리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우리들은 해란강(海蘭江) 모래사장에서 전체학생모임을 갖고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중간 널판지를 뜯고 영신중학교 교실 옆을 지나면서 만세를 외치면 우리들은 수업을 받다가도 유리창문을 넘거나 선생이 막고 있는 복도를 통하여 대성중학생들과 합류하여 5층대거리 (당시 5층대거리라는 이름만 남아 있고 5층건물은 없어졌으며 일송정(一松頂)도 소나무는 없고 이름만 남아 있으며 다만 해란강만이 용정의 서쪽을 유유히 북류하고 있었음)를 구보로 행진하면서 만세를 외쳤는데 그 이튿날부터 일본총영사관 청바지 기마경찰이 출동하여 만세행열과 충돌하였으며 나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 율타리 밖에 총총 배치되었으므로 우리들은 자진 중지하고 말았다. 이 일로 학생들이 출학 또는 정학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1931년 내가 3학년 때의 일이다. 영신중학교에는 매년 3학년 학생들이 선생 중 누군가를 트집을 잡아 동맹휴학을 하는 연례행사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학급 학생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일수였다. 내가 3학년 때 우리 학급은 우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 역사 선생을 몰고 늘어졌다. 2학기 역사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받아 이름만 써놓고는 아무도 답안을 쓰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함구하고 있으니 선생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울기 시작하였으며 사무실로 돌아간 뒤 학급 담임선생이 와서 이리저리 달래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자 학급반장인 나를 교장 앞으로 데리고 갔다. 전후전말을 이야기하라고 교장선생이 나에게 여러가지를 물어 보았지만 나는 줄곧 함구무언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교장은 하는 수 없이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폐급을 주장하였지만 다른 선생들이 반대하여 결국 무기정학으로 결정되었는데 2주일 후 해제되어 등교하게 되었으며 두 해 후에 나는 유감스럽게도 2등으로 졸업하였다.

대학진학, 동양 3국을 여행하다

그당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정해놓고 동경이 아니면 경성이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때 마침 만주국 최초의 대학으로 국립길림사범대학 제1회

학생모집광고가 정부공보와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응모하여 합격자 120명 가운데 단 한사람의 조선인으로서 입학하였다. 학생 전부가 관비생으로 기숙사 생활이며 재학중의 일체 비용은 국비로 보장되어 생각 밖의 호강을 하였다. 전공이 지리학인 관계도 있겠지만 여행을 무척 좋아하여 나는 여름방학은 절반이상을 무전여행을 하거나 친한 중국인 친구집에 가서 20여 일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중국인의 풍속습관을 살펴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학교의 관비수학 여행으로선 2학년 때 만주국전역을 20일 간이나 돌아다녔고, 4학년 때 수학여행으로선 4월 한 달동안 일본에 가서 구주지방 아소활화산에서부터 동경을 지나 닛포(日光)에까지 방방곡곡을 돌아보았고 이 해 여름방학에는 무전여행으로 하얼빈에서 봉천, 금주, 열하(熱河)와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천진을 여행하였다. 상해의 홍구공원까지 갔다 올 여정으로 출발하였으나 피로에서 온 건강관계로 상해에는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리장성 고북구(古北口)에 가서 지그재그식(之-갈지자식 즉 높은산을 넘을 때 앞뒤에 기관차를 달고 왔다갔다하면서 고개를 넘는 방법) 채도와 운행방법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대학공부를 끝마치고 1937년 12월 20일 거행된 졸업식에서는 졸업장과 아울러 중앙정부 문교부의 교원 배치장도 함께 수여받았다.

이루지 못한 사랑

그 동안 죽마고우 한갑선은 서울 중동중학에 재학중인 윤석준과 결혼해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갑선의 남편은 결혼한 지 일 년도 안되어 학교를 중퇴하고 목재상을 경영했는데,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나는 목재소를 경영하는 그들 부부를 만났다. 3학년때 그들을 만났을 때 갑선의 남편은 목재소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다.

37년 12월 나는 만주국 길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연길사범학교에 발령이 났다. 이 시기에 한갑선은 윤씨 가정에서 딸 하나만 낳고 단산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나는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던 엄장비와 합의이혼을 한 뒤였으므로 첫사랑인 한갑선과 결혼하려고 결심하고 부모님께 내 뜻을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허락하셨지만 아버지는 갑선이 이미 단산되어 후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 반대하셨다. 나는 2년 동안이나 한갑선과 일생을 같이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는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 살아라. 나는 관여치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갑선은 딸 윤희숙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났다.

“세상에는 사랑을 위해 왕위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갑선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후 영영 갑선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의 이름은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옥살이하던 감옥을 찾아오게된다.

6. 이역땅에서의 해방과 비단 흙주머니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100만 주민 가운데 우리 민족이 80만을 차지하고 있는 간도성의 성립연길사범학교였다. 그러나 교편생활 9개월만에 전근 발령이 나 간도성 민정청 학무과 시학(視學, 장학관)으로, 1년 뒤에는 같은 민정청 보건과 보건고장(계장)으로 일했다.

내가 결혼한 것은 보건과에서 재직하던 29살 때였다. 그때 21살이던 부인은 명천군의 인접군인 길주군 출생으로 학교는 나와 같은 ‘광명학원’ 고등여학부와 연길여자고등학교 사범부를 졸업하고 지방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일의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그 뒤 나는 성장관방 인사과 연성고장(고시와 직원 재교육관계 사무)에서 근무했다. 일제가 단발령을 내렸을 때 유생이 아닌 평민으로 단발령을 거부했고, 북간도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던 시절 독립군 군자금 모집책으로 비밀활동을 하셨던 아버지의 성품과 반일의식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진보적인 사상에 반일의식을 잊지 못하고 항일조직과 연대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고급공무원이 됨으로써 일본에 대한 민족의식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나의 ‘합리주의’는 다음해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오류였음은 물론이고 나약한 지식인의 자기합리화였음이 드러났다.

탄백과정에 스스로 나아가다

33살, 이립(而立)에 서서 나는 지나온 삶을 회한과 고통으로 되돌아보며 삶의 좌표를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방이 되자 북간도에도 민주정권이 들어섰고 새나라를 건설하려는 의욕과 희망으로 가득찼다. 그것은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어나 북간도에도 1,2,3차에 걸친 탄백(坦白)과정이 있었다. 나는 이 탄백과정에 스스로 나아가 나의 죄과를 거짓없이 낱알이 밝혀 말하고 민족앞에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탄백과정과 함께 공개인민재판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나도 46년 초겨울 연길시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인민재판을 직접 보았는데 이날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장이었던 강병철(강문봉의 큰아버지), 용정시 부시장 윤○○등 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거짓 애국자들

해방이 되자 곳곳에서 애국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왔다. 그러나 탄백과 정을 거치면서 죄과가 드러나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는 3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회장이었는데 부친—일제에 강점되자 입을 닫고 병어리가 되어 사람들이 그를 '지병어리'라 불렀는데 해방이 되자 36년만에 비로소 입을 열었다—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이 혼란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연변조선족의 민족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나는 이 혼란기를 거치면서 역사는 반드시 잘못을 밝혀내며 진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산교훈을 얻었다.

나는 북간도에 남아 나의 죄값을 하길 원했다. 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북간도, 비록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자라고 성장한 제2의 고향인 광활한 대지에서, 내가 역사와 민족앞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바로 그 땅에서 죄값을 할 때까지 땀흘려 일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을 바라볼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달랐다.

“해방이 되었는데 왜 중국에서 살아야 하느냐!”

아버지는 조국과 민족에 속죄하고 싶은 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시기 보다는 선산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 후손으로 선영을 모시고 고향땅에 묻히는 일이 더 절박하셨다.

해방이 된 지도 2년이 흘렀다. 새로 선 인민정권인 연변 전원공사에서 나는 민정청 민정고장으로, 그리고 장개석군이 동북에 진주한 뒤에는 연길에 후퇴해 있던 길림성 정부 민정청 민정계장으로 일했다.

“나는 조선에 묻혀야겠다”

아버지께서는 어느날 내가 일하고 있던 관선정 민정청장을 만나 “나는 조선에 묻혀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설득시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민정청장은 나를 불러 “부친께서 저토록 돌아가시길 원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 뜻에 따르라”고 하며 돌아갈 여비와 함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무국장 박일우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다.

47년 12월 25일 북간도를 떠나던 날 아버지는 1913년 고국을 떠날 때 고향 흙 서너줌을 넣어 가슴에 간직하고 왔던 그 비단 흙주머니를 장농 밑에서 꺼내어 화단의 언 흙 서너 줌을 얹어내어 덧담아 함께 가슴에 간직하셨다.

우리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끝내 고향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는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 선영을 뵈면 목이 없다”하시며 청진에

서 손자가 태어나기를 고대하셨으나 끝내 손자를 보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온 지 반년도 채 안된 1948년 4월 20일 72세의 일기로 작고하셨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던 때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어린아이처럼 근심없이 지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얼마동안은 허탈감에 사로잡히기만 했다. 고국의 고개를 넘기시고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이 사라실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닦다 엇디 하리

平生에 고타 못할 일이 이 뿐인가 하노라

— 星州本松江歌辭

불효의 회한을 송강가사에 기대어 읊노라면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뒤 내가 정치공작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내가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을 눈치채시고 청진 공동묘지에 묻히신 아버지를 고향 선산에 전실(前室)과 함께 합장시키시고 내가 추석에 휴가를 받아 집에 들렀을 때 선산의 아버지묘에 데리고 가셨다.

이상적인 조국의 교육제도

조국에 돌아와 나는 교육사업에 배치되었다. 아버지 뜻에 따라 조국에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다. 48년 2월부터 나는 시학(視學)으로 일하게 되었다. 조국에서 보게 된 교육제도는 무엇보다 나에게 놀라움이었다. 해방 후 '노동학원'이 생겨 일제의 탄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사상가의 자녀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어 대학에 편입시켰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학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나의 학창시절에 비교해 볼 때 이상적인 제도에 가까웠다. 나는 처음의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조금씩 벗어나 긍지를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

7. 전쟁과 39세의 인민군 노병(老兵)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8월은 북한에서 인민학교의 전반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해였다. 그런데 그해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의무교육제 실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각급 학교들은 적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지역에 가교사를 지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습반을 조직하여 선생이 순회지도하는 방법도 취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천상륙이 감행되자 조직적 후퇴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퇴로가

차단되어 일부는 입산하고 극히 일부는 포로가 되었다. 이때 함경북도에서는 도급 기관이 전부 두만강 우안의 국경의 도시 회령에 소개(疏開)하여 있었는데 새로 인민군 제8군단이 조직되었다. 군단장은 상업상 장시우, 군단 및 사단의 간부는 전부 함북도당과 함북도 인민위원회 간부로 조직되었고 두 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제45사단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에, 제46사단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사병은 40세 미만의 남자로 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젊은 청년들은 이미 군에 입대하여 전선에 동원되어 지금까지 직장을 지키고 있던 40세 이하의 각급학교장, 면당위원장, 면위원장, 리당위원장, 리위원장, 40세 미만의 여타 직장책임자와 노동자, 농민 그리고 후퇴과정에서 대오를 잃고 함경북도까지 총을 거꾸로 메고 돌아온 젊은 사병들이었다.

계급도 군번도 없이 회색솜옷으로 갈아입고

그때 내 나이 39세. 뒤늦게 동원되어 8군단이 있는 종성에 도착하여 백의종군이 아니라 중국 인민으로부터 보내여 온 회색솜옷으로 갈아입은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으며 머리조차 깎지 않은 회의종군(灰依從軍)으로 그날밤 종성을 떠나 용정에 도착하여 8군단 제45사에 소속되어 용정에서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1951년 1월 2일 제45사의 일부 인원은 용정을 떠나 길림(吉林), 통화(通化), 집안(輯安)을 경유 압록강을 건너 다시 조국에 돌아왔는데 이때는 순치지국(唇齒之國) 중국인민지원군이 순망치한(唇亡齒寒) 순치보거(唇齒輔車)의 구호를 내걸고 조선전선에 들어온 때라 후퇴의 마지막 단계에 조직된 8군단은 이제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해산하여 후퇴 전에 군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른 부대에 뿔뿔히 흩어지며 각 직장 책임자들,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타 민간인들은 전부 제대하여 원래의 직장에 돌아가 전시사업에 복무하게 되었다.

순치국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가로 전세는 돌변했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 다시 조국에 돌아온, 아직도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으며 머리도 깎지 않은 회의종군부대(灰衣從軍部隊)는 만포진에서 가까운 별오(別五)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1월 10일 내가 반장이 되어 당시 101호 공장에서 제작한 군복을 두 대의 트럭에 나누어 싣고 다른 4명의 대원과 같이 전방에 나가다가 옛귀(外貴)라는 역전에서 호주비행기(일명 동파리, 뽕뽕이) 두 대의 공습을 받아 한 사람이 그자리에서 죽고 나와 다른 한 사람이 부상당하였는데 마침 그 근방에 있는 최고사령부 69호 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간호원 전부 서울사람. 한 부락이 한 병동. 민가분숙)에 입원하여 2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군무에 복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퇴전면폭탄파편상에 의한 불완전 절골이란 병명으로 제대하였다.



북간도, 해방, 전쟁, 투옥, 석방. 1973년. → 62세. 유신과 분단의 고뇌를 엿장수 리어커에 싣고……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폐허 위를 걷고 걸어서

동해안의 철도는 공습이 심하여 군수품과 군대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수송은 허용치 않았으므로 수천리길을 개마고원 삼수갑산을 통과하여 길주에 소개하여 있는 가족에게로 걸어가는 데 23일이 소요되었으며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소개하여 있는 회령에 가는 데 다시 3일이 소요되었다.

나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24일을 걸어 필사적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은 시체를 밟고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작은 리마저 파괴되었고 철도 레일은 뿔뿔히 찢어지고 논밭은 폭탄에 패여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비행기 폭격으로 마을 사람들은 한동 추위에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살고 있었다. 소학교에까지 폭탄을 마구 투하해 아이들이 죽은 참상은 눈뜨고 보는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명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 남은 늙은이들이 비행기폭격을 피하려 소잔등에 가마니를 씌워 위장해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돌아가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부상당한 발을 끌고 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비극을 밟고 24일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전쟁 때도 학교는 쉬지 않았다. 비상대책위가 서고 고등학교특별반을 만들어 교사들과 함께 반공호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오래 전부터 행정관리를 떠나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었던 차에 전쟁 때 회령에 소개해 있던 청진교원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조선의 인텔리는 약하지 않다.

전쟁이 끝난 뒤 청진에 돌아오니 교사(校舍)는 불에 타다 만 시커먼 벽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

었다. 미군이 청진에 주둔한 것은 불과 3일이었지만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무너진 벽을 일으켜 세우고 스펀트를 덮어 가교사를 지어 공부를 시작했다. 폐허 위 가교사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다시 책을 들었고 잿더미가 된 조국은 인민들이 하나가 되어 복구사업을 해 나갔다.

‘인테리는 약한 존재다. 그러나 조선의 인테리는 약하지 않다. 전쟁의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나는 대학강단에서 지리학을 강의하며, 지리학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학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이 된다고 믿었다.

중앙당의 소환을 받았을 당시 나는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환태평양 지진대’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일본 어용학자들의 이론의 허구성을 밝혀내려는 논문이었다.

정치공작원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논문은 통일이 된 뒤에도 쓸 수 있지만 통일사업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다.’

8.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15년 옥살이

1957년 4월 25일 서울에 도착한 나는 일본 오오사카 이꾸노구(大坂生野區·조선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가 우리 가족이 혹시나 이 곳에 와 있지나 않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군정 제계의 고위층에 있는 과거 중학시절의 고향동창들을 만나 그들의 알선으로 당시 부흥부의 용자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토건회사 중앙산업에 앞으로 부장직을 맡을 예정으로 취직해 있었다. 그러나 9월 12일 서울 시경에 체포되어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문인구 검사(후일 변호사위원회위원장)가 15년을 구형하였으나 당시 반공판사로 이름을 날리던 윤학로 재판장이 5년을 올려 20년을 언도, 2심에서는 김홍석(특무대장 김창용 살해 사건을 취급한 재판장) 재판장이 5년을 깎아 15년을 언도하였으며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상소로 15년으로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나의 15년 옥살이는 서울 서대문감옥 2년, 마포형무소 2년, 대전교도소 7년, 전주교도소 4년으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서울에는 유일한 혈육인 생질녀(나를 업고 두만강 얼음판을 건넌 이복 누님의 딸) 김옥련(金玉連)과 생질서 김석(金石) 씨가 있어 그들은 친삼촌보다도 더 알뜰하게 옥바라지를 하여 주었다.

내가 체포되어 기소되자 그들은 변호사를 사려고 하였으나 내가 강력히 반대하여 국선변호사로 그냥 재판을 진행시켰다. 내가 미결에 있는 동안은 주마다 두 사람이 번갈아 면회와 옷견지와 용돈 차입을 잊지 않았으며 서울을 떠나 대전, 전주에 있을 때에도 면회와 서신으로 계속 옥바라지를 해 주었다.

9. 엿장수 3년 간의 고독한 생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뒤 생질서의 집에서 두 부부의 알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경찰의 손담당형사와 정보부의 박담당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바람에 이웃들에서는 수근수근했고, 나는 나대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말은 못하고 좌불안석이였다.

하루는 식구들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가위를 찰각거리며 리어커를 밀며 지나가는 엿장수를 불러놓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좋다. 나도 엿장수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기로 하자.

다음날 나는 수유리, 미아리, 마장동, 답십리, 신설동 등을 헤매었다. 마침내 제기1동 287-31에 자리한 박광용 씨의 간판도 없는 작은 고물상에 내가 옥살이하던 독방보다 작은 캄캄한 방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튿날 찾아가서 나는 도봇꾼이 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엿장수가 된 대학교수

1973년 3월 23일 생질서 부부가 마련해 준 작업복, 나들이옷, 침구, 취사도구를 걸머지고 장삿돈을 안주머니에 잘 집어넣고 걸어서 박씨 고물상에 찾아갔다. 24일과 25일, 이틀간은 고물상

주인의 지시에 따라 나와 나이가 비슷한 도봇꾼 노인을 따라 다니며 엿장수 견습을 했다.

마침내 3월 26일 주인집에서 빌려준 리어커에 강냉이가 든 비닐봉지 둘을 200원에 사서 올려 놓고 작은 저울대 하나를 빌려 강냉이 봉지 사이에 밀어넣고 큰 가위 하나를 빌려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리어커를 거꾸로 밀면서 활짝 열린 고물상집 대문 밖으로 나왔다.

고물상집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가윗소리를 찰각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누볐다.

“고물 삽니다. 고물장사가 왔습니다. 신문, 잡지, 망가진 솥·대야, 파손된 무쇠가마, 각종 빈 병, 구리, 알미늄, 아크릴, 냄마, 무엇이든지 안 사는 것이 없습니다. 고물 파십시오.”

가윗소리도 시원칠 않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앞이 보이질 않았다. 문득 30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님의 영상이 떠올랐다.

“사내자식이 곤경에 처했다고 눈물을 흘리다니!”

영상이 사라졌다.

‘아버님 ...’

“고물 삽니다. 고물을 갖고 나오십시오. 신문, 잡지, 망가진 솥·대야 ...”

공장을 단골로 하는 도봇꾼들은 며칠에 한번씩 공장 구내에 들어가 파지, 고철, 비닐, 플라스

틱 등을 산더미처럼 리어커에 싣고 나와 툭툭히 재미를 보곤 했다. 그러나 내게는 가정집 아주머니들이 병이나 파지, 잡지 나무랑이 등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오기를 기다려 내어주는 이른바 가정단골밖에는 없어서 큰 재미를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 일도 더 오래는 못할 일이구나...!’

어느날 담당형사가 찾아와 물었다.

“극장 청소부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소?”

나는 누구에게도 예측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 제의를 거절했다.

며칠 뒤 그 담당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한 분을 소개 해줄테니 그 분하고 가정을 꾸리면, 부족한 생활비는 경찰에서 보조해 주겠소.”

나는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잠적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나는 일부일처주의자요. 내가 아무리 늙었다해도 다른 여인과 같이 생활한다면 조국이 통일됐을 때 무슨 낯짝으로 처자를 만나겠소.”

나는 두번째 제의도 거절했다.

“찰칵찰칵 ... 고물샵니다. 고물장사가 왔습니다. 신문, 잡지, 망가진 숯·대야 ...”

세월이 흘렀다. 옛장수 3년이란 세월이.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옛장수 3년에 내 눈에는 고물만 보이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진열장에 쌓여 있는 화려한 물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저것이 고물이 됐을 때 얼마를 주고 사면 수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 일도 더 오래는 못할 일이구나...!’

심중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 한사람도 없이 고독한 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10. 사회안전법 사슬에 묶인 14년 옥살이

고물상에서 인고(忍苦)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세 암흑기의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사회안전법이 만들어졌다.

나는 고물상과 사과케잌을 ‘ㄷ’자형으로 쌓고 그 위에 스텐트를 덮어 씌운 방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두 형사들이 찾아와 이 고단한 잠을 깨우고 나를 끌고 청량리경찰서로 연행해 간 것은 1975년 7월 24일 새벽이었다.

고단한 잠을 깨우고 찾아온 사회안전법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온 사람은 김○○여인을 포함해 열 사람이었다. 김여인은 남편과 같이 입산한 빨치산으로 남편은 옥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 하나를 데리고 청량리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같이 어느날 새벽 형사들이 들이닥쳐 집에서 끌어냈다는 것이다.

딸이 ‘이번에는 엄마와 같이 가서 징역 살겠다’고 울며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형사가 발로 딸애를 걷어차, 김여인은 길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딸을 뒤돌아 돌아보며 끌려왔다면 소리지며 눈물을 흘렸다.

끌려온 사람들은 과거에 구 국가보안법, 반공법 또는 국방경비법에 연루돼 10년, 20년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인데 다시 지난 문제를 걸어서 구속한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나며, 더구나 재판이란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구속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끌려온 사람들은 한사람 한사람 밤색조사를 받았다. 8월 9일은 감호가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김여인은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쥐고 “최선생님!” 하고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다행히 그녀는 감호에 걸리지 않고 풀려나갔다.

감호결정통지문

우리는 끌려온 다음날 저녁 트럭에 실려 서대문 교도소에 도착해 미결감에 수감되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네다섯 사람씩 서울 지방검찰청 성북지청에 출두해 조서작성 심문에 응해야 했다. 8월 9일, 그동안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성북지청에 출두했다. 감호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풀려나갔으나 남은 사람들은 황산덕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호결정통지문을 받았다.

전국의 감호처분 받은 사람들이 대전교도소에 집결한 것은 1975년 8월 15일의 일이었다.

이때 청주보안감호소 청사는 이미 착공되어 있었으나 유류파동에 물가상승으로 자재가격이 폭등해 하청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건축회사가 청부를 맡게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들은 대전 교도소에 집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전교도소는 박정희 집권초기에 전국의 정치범 전원 약 800명(내가 어느날 그 당시의 이종남 계호과장과 면담하면서 칠판에서 본 숫자는 769명)이 7년 간 옥살이를 하던 고장이기도 하다.

8월 15일 점심식사가 끝나고 준비를 하여 바로 출발하려고 밖에 나왔을 때 월례행사인 ‘방공연습’ 사이렌이 울려서 우리들은 그곳에 주저앉았다가 해제 사이렌이 나서야 비로소 출발하였다.



← 새로 정착한 동지, 민중
탕제원 식구들과 함께. 왼
쪽으로부터 친구 이두균,
한방 이세균, 저자, 탕제
임방규, 홍보·기획 권낙기

강제 식발에 다시 수의를 입고

대전교도소 중앙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발부와 부장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머리를 깎으려 했다. 우리들은 재판을 받은 일이 없어 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발을 거부하고 간수장면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식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저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교도소에서는 이발부에 잡범까지 동원해 팔, 다리, 머리를 붙잡고 머리를 깎는지 뽑는지, 강제식발을 당한 물결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푸른 수의마저 강제로 입혀졌다.

간수장이 수번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두균 동지가 "수번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죄수가 아니오"라고 항의했다.

취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간수장은 수번을 번호라고 고쳐 말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0-45 최옥예, 0-46 김대봉, 0-47 이두균, 0-48 신현철, 0-49 금재성, 0-50 김홍구, 0-51 양창식, 0-52 강진원, 0-53 최남규, 0-54 구희서였다.

서울지구에서 온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을 포함해 10명이었다.

부장과 담당간수에게 끌려가 배방된 감방에 수용되었는데 우리가 중앙홀을 떠나기도 전에 의정부파와 또 다른 한 무리가 들어왔다.

보안감호소 비전향 생존자 52명

8월 15일 대전에 집결한 감호자 총수는 1번 이종 동지로부터 59번 이윤덕 선생까지 59명이었으며 그후로 한 달에 한두 사람씩 추가되어 청주(대전포함)보안 감호소의 구메밥을 먹어본 사람은 총 155명이며, 1988년 4월현재 청주보안감호소 비전향생존자는 52명이다.

청주보안감소(대전포함)에서 옥사한 사람은 16명이며, 그 가운데 비전향이 13명이었다.

청주보안감호소 신축공사가 완공되었다. 우리들은 수정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뽕뽕 묶여졌다. 굵은 밧줄로 마치 포도송이와도 같이 5,6사람씩 묶여 세 대의 버스에 태워져 청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앞에도 경찰의 백차, 뒤에도 경찰의 백차, 연도에는 총을 든 경비병들이 늘어서 있었다. 우리들의 차가 서기만 하면 교통이 마비되었다. 어마어마한 행차다. 한사람이 화장실을 가는데도 네 다섯 사람이 따라 다녔다.

투쟁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청주보안감호소에 도착했다. 그날은 1978년 11월 18일이었고, 우리들 감호자의 총수는 118명이었다. 우리들이 대전에 집결한 그 해부터 우리들의 집단단식이 있는 1980년 봄까지 6년 동안 해마다 법무부 검찰 제3과(1985년부터 제4과로 바뀜) 검사 세 사람이 서기들을 대동하고 와서는 각 과장실에서 비전향자를 한사람도 빠짐없이 면담을 하였는데 우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회안전법'의 위법성, 청의식발의 불합리성, 수번이란 말의 부당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끈질기게 싸우고 싸웠다.

청주보안감호소에 도착하자 머리는 별말없이 기를 수 있게 되었으며 두 달 뒤 푸른옷이 아닌 회색 솜옷이 나왔고 '수번'이란 말은 '칭호번호'로 바뀌었다.

대전 임시감호에 있을 때는 일체 처우가 일반기결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작업 역시 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은 4등으로 언제나 배를 곯고 살아야만 했다.

청주에 오자 처음 크게 문제된 것은 주식의 양의 증가와 부식의 질적 제고 그리고 운동시간 연장, 환자 처우개선, 서적 검열 및 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였다.

주식의 양이 증가된 것은 즉 3등몹이를 먹게된 것은 청주에 이감된 뒤 일 년이 될 무렵이었으며 질적 제고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석방되기 전 마지막 50일 간은 사회정세가 호전되어 한 방에 두 사람씩 함방하게 되었는데 0.75평의 독방이어서 서로 거꾸로 누워 자야만 했으며 식사는 우리 젊은 동지들이 배식을 담당하게 되어 형(型)에 적히지 않은 밥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세계 걸작'의 감호소 운동장

운동문제는 그야말로 오랜 시일을 싸우고 싸워 얻은 결실이다.

청주에 도착한 2,3일간은 3사람씩 합방시켰으니 벽에 기대어 앉아서 밤을 새워야만 하였다. 곧 독방조치가 되었고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장 설계야말로 세계적인 걸작(?)이었다. 2층 감방 옥사에서 5,6척거리에 15척 콘크리트담 반 이상 높이의 콘크리트 담이 쌓여 있고 길이는 옥사 길이보다 훨씬 작은 것을 두 개로 나누었으며 한번에 두 사람밖에 운동할 수 없었으니 운동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또 운동장지면과 콘크리트벽에까지 곰팡이가 파랗게 끼어 냄새가 쿡쿡 코를 찔렀으며, 옥사에 가려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우리는 과장, 소장 면회를 요구하거나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검사들을 통해 바깥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싸우고 싸웠다.

바깥 운동장을 사용하려는 투쟁은 쉬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흘렀다.

그러자 감호소에서는 청주교도소 재소자 전원을 감호소 바깥 운동장에 끌어들려 소위 '정화운동'을 시작하였다.

보안감호소는 청주 한 곳 뿐으로, 청주교도소를 제외한 모든 교도소가 본 운동장에서 '정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주교도소만이 감호소 운동장에 재소자들을 끌어들여 정화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 바깥 운동장 사용을 주장해온 우리들의 오랜 투쟁을 좌절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싸우고 또 싸웠다. 15척 콘크리트담 안에서는 투쟁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제엄령 속 항의 단식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치하의 제엄령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쓴 집단항의단식을 했다. 이때 우리는 혈맹의 벗, 김용성, 변형만 두 동지를 잃었다.

그날은 집단단식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7월 11일 강제급식이 시작된 날이었다. 12시를 전후해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같이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계호과에 마련된 강제급식장으로 끌려들어갔다. 바닥에 앉으려다 나는 주춤하고 말았다. 왼쪽 콘크리트바닥에 항상 혈압이 웃돌던 92번 김용성 동지가 포승에 꿰인 채 뒤로 비스듬히 꿰어 앉아 운명해가고 있었다.

그의 동공은 이미 확산되어 어디를 보는지 헤아릴 수 없었고 반쯤 벌어진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한다는 징조였다.

가벼운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날 때는 비록 같이 나지 못하였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자고 맹세했던 혈맹의 동지 옆에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53번!(당시 나의 수번) 뭘 보고 있어. 꿰어앉아. 자, 이것 봐... 이렇게 모두를 복식하기로 무인을 찍고 죽물을 받아먹고 돌아갔어. 53번은 어떻게 할 건지 똑똑히 말해봐!"

운명하는 동지 곁에 꿰어앉아 변계장이 내미는 장부를 보았지만 눈물이 흘러 글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저는 복식을 못하겠습니다."

"담당! 53번을 포승으로 묶어!"

그때 오른쪽 마지막 걸상에 앉아 있던 촉탁 의무과장이 벌떡 일어섰다.

"53번은 5년 전부터 심부전증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중환자입니다. 심장병환자에게 강제급식을 시킨다면 저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변계장의 얼굴이 울그락 프르락했다.

"담당. 이리와! 53번을 가죽면회실로 끌고가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담당이 나의 회색관복 소매를 끌어당길 그때, 바로 그때 왼쪽에 있던 김용성 동지의 주검이 가벼운 소리를 내며 내가 있는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마치 나하고 같이 가자는 듯이...

나는 뒤돌아보며 돌아보며 담당에게 끌려갔다.

슬프다. 투쟁이 없이는 굴종이 있을 뿐이지만 이름없이 사라져간 벗들의 죽음은 또 어찌하겠는가.

눈물을 씻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